

아름다운 귀로

북한의 결핵관리 현장을 다녀와서

래리 가이터(시퀸라 세계결핵재단)

래리 가이터(Larry Geter) 1973년부터 4년간 미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의 결핵사업을 위해 일한 일이 있다. 처음 2년간은 울산군 보건소 결핵실 결핵과에서 그리고 마지막 2년은 보건사회부에서 일했다. 현재는 결핵의 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시퀸라세계결핵재단(Sequella Global Tuberculosis Foundation)에서 임상의학 책임자로 있다

2001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유진벨재단의 북한방문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내가 방문단의 일원이 된 이유는 첫째 북한 결핵요원을 위한 교육과정에 강사로서 참여하고 교육참가자에게 현미경을 1대씩 기증하며 (현미경 총 80대) 재단의 북한 결핵진료지원 성과를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방문단은 스티븐 린튼 형제를 포함해서 총 7명이었다.

유진벨재단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미국과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 1995년부터 북한



유진벨재단의 북한방문단 일행

을 지원했고, 1997년부터는 북한의 결핵병원 및 요양원의 최대 지원단체이다. 재단은 군단위 결핵요양원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 왔으며 지원품에는 엑스선검사장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치료약품, 요양원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는데 필요한 소형 트랙터와 농업용 기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주한 미평화봉사단원으로서 1973년부터 울산시보건소에서 일하면서 결핵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후 나의 경력의 대부분이 결핵과 관련이 있는데 미국 질병관리국 결핵대책반, 국제항결핵연맹, 세계보건기구를 거쳐 현재는 시컬라 세계결핵재단에서 일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 린튼 형제를 처음 만났는데 나의 결핵에 관련된 경력과 내가 한국말을 조금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자문역할을 맡게 되었다. 나의 결핵관련 경력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이것을 다시 돌려주고 또 북한의 결핵사업을 돕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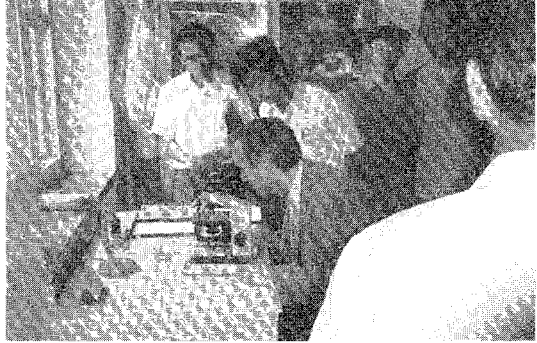
내가 북한을 방문한 당초의 목적은 사리원에서 일선 결핵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일간의 교육과정에 강사로서 참여하는 것이었다. 세계보건기구의 교육 과정을 마친 북한의 결핵전문가들이 대부분의 강의를 맡고, 나는 1~2 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교육계획은 아시아재단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80개의 현미경 세트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현미경 세트에는 정비를 끝낸 중고현미경과 시약등 결핵균의 검사에 필요한 물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병실에서의 의사와 환자(옆) 개천 결핵진료소(아래)



현미경으로 결핵균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이번의 교육은 일선 요양소에
서 일하는 결핵요원들을 대상으
로 하는 첫 번째 교육으로서, 엑
스선 검사에 의존하는 결핵진단
방법으로부터 현미경검사에서
균양성인 결핵환자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



고 있었다. (공중보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현미경검사에서 결핵균 양성인 결핵환자를 찾아내어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결핵균의 전파로 인한 새로운 감염을 막을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결핵환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 보건성의 관리들이 이 교육 계획을 취소시켜 버렸다. 표면상의 이유는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나빠져서 미국의 단체가 참여하는 교육계획을 진행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핵진료와 결핵균 검사의 관리자들을 상대로 해서 한나절 동안의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대신하는 수 밖에 없었다. 토론의 내용은 만족스러웠고, 그들의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의학적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선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 무산된 것과 현미경세트를 분배할 수 없었던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교육계획이 취소됨으로써 유진벨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결핵요양소를 방문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우리 일행은 나홀에 걸쳐 평양에 있는 사동 및 봉대원요양원, 그리고 평성, 개천, 안주, 꾀산, 신의주, 염주 등 지방 시/군의 요양원을 방문했다. 결핵 요양원은 모두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한반도의 서북해안을 따라 도시와 농촌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북한의 결핵 진료방법은 만족스러웠고, 제공된 물자가 잘 이용되고 있었다. 유진벨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전에는 결핵약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 요양원들이 의료기관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수용소에 더 가까운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내에 의사들은 단기 화학요법을 채택하였고, 환자들은 훌륭한 진료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초기에는 모든 환자가 장기

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리가 방문한 모든 요양원에서는 현미경검사에서 결핵균이 육성될 때까지만 입원치료를 하였다. 그 후에는 퇴원해서 마을 진료소를 통해 요원들의 직접 감독하에 복약을 계속하며, 매월 1회 요양원에서 경과관찰을 한다고 했다. 북한의 결핵진료방법에 대해서 내가 제기한 문제는 여러 나라의 결핵진료방식에 공통되는 것으로서 첫째는 진단과 환자의 경과관찰에 있어 엑스선 검사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는 치료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다. 엑스선 검사에 너무 의존하면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고 (치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염성이 낮은 환자를 치료하게 됨으로써, 자원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전염성이 강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약품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수가 있음.) 또한 환자 치료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환자의 병이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내성결핵의 발생이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게 된다.

북한에 대한 나의 인상은 먼저 매우 한국적이라는 것이다. 습관이나 태도는 내가 만난 어떤 한국 사람과도 차이가 없었다. 사람들은 매우 예의바르고 우리가 편안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처음 만났을 때는 다소 수줍



어 하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우 다정해진다. 예상은 했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정부가 생활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동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말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일행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의 통제노력이 헛수고로 끝나는 수도 있었다.)

또한 예상했으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김정일 위원장과 그의 부친 김일성 주석 개인에게 국가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국가의 모든 업적이 그들의 공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1970년대에 내가 한국에 살고 있었을 때 어디를 가나 구호가 걸려 있었는데 그 모든 구호가 “새마을”과 “국방”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경제개발전문가는 아니지만 방문기간 동안에 식량난의 흔적을 보지 못했으며, 전에 그 곳을 방문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방문지역의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이라고 한다.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마련해 준 유진벨재단에게 매우 감사하다. 재단과의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내가 처음으로 한국과 울산시 보건소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번역: 박종달(대한결핵협회 부회장/남북협력위원회 위원장)